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7.(화) 15:00 배포 2026.11.16.(월) 16:00

국가AI전략위, 대전서 '과학기술 AI·창업·인재' 현장 소통

- 하정우 부위원장,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 찾아 과학기술·AI 융합 통한 국가 R&D 혁신 방향 논의
- 팁스타운 입주 AI 스타트업·투자사 만나 지역 창업생태계 현장 목소리 청취
- 카이로스 방문, AI기반 제조혁신을 통해 글로벌 K-팩토리 성공전략 논의
- KAIST「이노베이트코리아 2026」참석, 산·학·연 관계자와 대한민국 AI의 미래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11월 17일(화) 대전을 방문해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 대전 팁스타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AI 연구·창업 현장을 살펴보고 산·학·연 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강원, 대구·경북에 이어 국가 AI 전략이 실행되는 현장을 직접 살피고, 과학기술 연구개발부터 AI 창업과 산업 생태계, 미래 AI 인재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과학AI연구센터] 과학기술과 AI 융합을 통한 국가 R&D 혁신 방향 논의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 내에 자리한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를 찾아 유용균 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았다. NAIS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AI Native R&D'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에 설치된 조직으로, '과학기술×AI 전방위 결합으로 국가 혁신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NAIS는 데이터·GPU·AI 모델 등 과학AI 자원을 한데 모은 통합플랫폼 구축, 자율형 AI 과학자 개발과 자율실험실 구축·운영, 온·오프라인 과학AI 연구협력 허브 조성을 핵심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표준과 공통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 표준·도구·인재는 NAIS가 허브(Hub) 역할을 맡고, 분야별 문제 해결과 실행은 출연연구기관(Spoke)이 자율적으로 맡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센터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임무지향적 연구개발과 과학기술×AI를 결합해 국가적 난제 해결과 연구개발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는 'K-문샷'의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K-문샷은 신약, 핵융합,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반도체, 양자, AI 과학자 등 12대 미션별로 총괄지휘자(PD)를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NAIS는 미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 [대전 팁스타운] AI 스타트업 · 투자사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이어 충남대학교 내에 있는 대전 팁스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입주 AI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 팁스타운은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방 대학과 연구소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이끌기 위해 2021년 조성된 개방형 창업 공간으로, 현재 창업기업 26개사를 비롯해 투자기관 등 총 30개사가 입주해 있다.

간담회에는 딥테크 분야 팁스(TIPS) 운영사인 카이트창업가재단, 스케일업파트너스 등 투자기관과 함께 심투리얼(물리 기반 3D 시뮬레이션·AI 학습용 합성데이터), 그린다AI(AI 기반 해외영업 지원 솔루션), 넥스트웨이브(IoT 제품 개발 지원), 필상(AI 기반 피싱 차단 서비스), 코엘아이(온디바이스 AI 기반 컴패니언 로봇) 등 AI 창업기업이 참여해 기업별 사업 현황과 기술·서비스 개발 경험을 공유하였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투자 유치, 기술 사업화, 시장 진출 등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지역 AI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팁스타운 창업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AI 기업들의 기술과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 [카이로스] AI기반 제조혁신을 통해 글로벌 K-팩토리 성공사례 만들어야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장영재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다임리서치 대표)로부터 카이스트가 만든 인공지능 무인공장 플랫폼 '카이로스(KAIROS)'를 소개받고, AI 기반 제조혁신 현장을 살펴보았다.

카이로스는 물류·협동·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AI로 통합 제어하는 차세대 무인공장 운영체계로, 로봇부터 제어기, 무선충전,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100% 국내 기술로 구축됐다. 특히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장 전체를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통합 제어하고, AI 에이전트가 로봇 간 협업과 생산·물류 운영을 최적화하며, 로봇의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미래 제조혁신 사례를 보여주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강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가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무인 공장 시스템('K-팩토리')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성공 전략을 논의하였다.

◇ [KAIST] 「이노베이트코리아 2026」 참석, 산·학·연과 AI 미래 비전 공유

이어 KAIST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린 「이노베이트코리아 2026」에 참석했다. 이노베이트코리아는 2017년 시작되어 2022년부터 KAIST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는 과학기술·산업·문화 융합 행사로, 올해는 'NEXT 10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Beyond AI, Humanity First)'를 주제로 KAIST 학생과 교수,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자, 산업계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 과학기술의 성과와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배충식 KAIST 총장, 최진영 헤럴드 총괄 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과학기술과 AI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AI 시대, 미래를 얘기하다'를 주제로 한 AI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했다. 윤윤진 KAIST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윤국진 KAIST AI 대학장, 진요한 LG CNS AI센터장,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함께했으며, 패널들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 AI 시대 기업의 생존전략, AI 인재의 미래를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AI 혁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 AI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인재양성지원팀	책임자	팀 장	이연주 (02-2224-4171)
		담당자	사무관	홍 선 (02-2224-4173)
		담당자	전문관	김연주 (02-2224-4178)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